

보도 일시	2026. 9. 17. (목) 14:00				
배포 일자	2026. 9. 17. (목)				
담당 부서	문화사업팀	책임자	팀 장	박미옥	(031-324-9130)
	문화사업팀	담당자	선 임	김해인	(031-324-9131)

농업유물이 일상 속 문화상품으로

- 국립농업박물관, 문화상품 공모전 최종 선정작 5점 발표 -

-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은 소장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‘2026년 국립농업박물관 문화상품 공모전’의 최종 선정작 5점을 발표했다.
- 총 71점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투표, 3차 견본심사를 거쳐 ‘양부일구 북 커버 백’, ‘매통 화분 키트’, ‘매통이 스트링 보틀 백’, ‘청화백자종지기·농사직설 벤딩 펜슬 파우치’, ‘양부일구 찻잔 세트’를 최종 선정했다.
- 소장유물 중 양부일구는 북 커버 백과 찻잔 세트로, 매통은 화분 키트와 스트링 보틀 백으로, 청화백자종지기과 농사직설은 문구용 파우치로 제작해 전통 유물을 일상적인 제품으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.
- 선정작은 박물관 온·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향후 국립농업박물관 문화상품점 입점 및 판매 연계를 지원해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“처음으로 실시된 공모전을 통해 농업유물이 실용적인 문화상품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농업문화유산의 가치를 담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<양부일구 복 커버 백>



<매통 화분 키트>



<매통이 스트링 보틀 백>



<청화백자종지기·농사직설 벤딩 펜슬 파우치>



<양부일구 찻잔 세트>